

항공업계, 휴가철 앞두고 코로나 대책 총력 “방역만전... 안심하고 탑승하세요”

대한항공, 탑승객간 접촉 최소화
조원태 회장 등 임직원 기내 소독
아시아나, 보건·위생 조치 도입
제주항공, 기내서 'S.A.F.E' 실시

항공업체들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전 국제선 및 국내선을 대상으로 '존 보딩(Zone Boarding)'을 실시하고 있다. 존 보딩은 항공기내 구역을 세분화해서 구역별 순서를 정하고 탑승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후방열 승객부터 순서대로 탑승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석 승객들이 한번에 줄을 서서 탑승하던 방식에서, 존별로 순서를 세분화해 혼잡을 방지하고 승객 간 이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명의 임직원이 직접 기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기내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은 고객의 건강하고 안전한 비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소독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자사가 속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의 회원사와 협력해 공동 보건 및 위생 조치를 도입했다. 회원사 항공편 간 환승을 포함한 전 여정에서 승객들이 일관성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게 주요 조치다. 필요시 탑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위생 물품과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이들이 비행 중 증상을 호소할 때를 대비해 의심 환자를 다루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

또, 탑승객은 스타얼라이언스가 홈페이지 내 신설한 온라인 여행 정보 허브에서 회원 항공사와 주요 취항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위생 조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 주기된 항공기가 증가함

에 따라, 중정비 조기 수행을 통해 정비 항공기 수량을 늘리고 외주 정비를 자체 정비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안전 강화에도 힘쓰고 나섰다. 5~6월 예정이었던 5대 항공기의 중정비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 한해 중정비 대수를 52대에서 55대로 확대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은 객실승무원의 기내 서비스에 대해 'S.A.F.E'라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승객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 친근하고 감성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제주항공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항공기 운항 중 기내 화장실 소독을 실시해 탑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부천영화제 VR로 즐겨요”

SKT, '감독과의 대화' 중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하이브리드인 '감독과의 대화'를 가상현실(VR)로 볼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제 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서 열리는 '감독과의 대화'를 '점프VR' 내 소셜룸에서 사전 녹화방식으로 제작했으며, 영화제 기간중 일반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감독과의 대화'는 지난 6일 SK텔레콤 '점프VR' 내 소셜룸에서 2회에 걸쳐 BIFAN의 '비온드 리얼리티' 초청작 5편의 감독과 제작진 8명을 초청해 사전 제작됐다.

'감독과의 대화' 1회차는 '몽중화'의 오성 대표와 박용재 감독, '드림 마에스트로'의 임병한 감독, '드림 205'의 김해림 프로듀서가 참여했다. 2회차는 이승무 크리에이터, 360도 VR시네마 '레인프루츠'의 송영운 감독, '진격의



'감독과의 대화'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점프VR' 소셜룸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아빠'의 성시흥 감독과 김해경 미술감독 및 김현욱 촬영감독 등이 참석했다. 가상세계에서 진행된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제 기간중 '점프VR' 모바일용 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은 이번 BIFAN에 출품된 21편의 VR 영화를 '점프VR'에서 8월 말까지 단독 상영한다. 이용자들은 오클러스고 또는 기어VR 등 HMD 디바이스를 통해 '점프VR'에 접속하면, 영화제에 출품된 VR영화 21편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세균 99% 박멸”... 삼성 스마트폰 살균기

자외선 살균 무선충전기 선보여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위생까지 책임진다.

삼성전자는 8일 뉴스룸을 통해 국내에 '자외선(UV) 살균 무선충전기'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닷컴과 디지털프라자 매장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4만9500원이다.

제작은 삼성 모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SMAPP) 파트너사인 삼성물산에서 맡는다.

삼성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생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바일 기기 소독기를 직접 판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균기는 내부에 세균을 최대 99% 제거할 수 있다고 글로벌 시험업체 인터텍과 SGS에 확인을 받았다. 제품을 넣고 10분간 가동하면 되며, 그 이상 가동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듀얼 자외선 기능을 탑재해 물건 위



삼성전자 살균 무선충전기와 IT 제품들.

와 아래 가리지 않고 한번에 소독해준다.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해 살균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독일과 네덜란드, 태국과 싱가포르에 살균기를 출시한 상태며, 국내에 이어 미국 등으로도 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향균 코팅이 된 스마트폰 케이스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김재용 기자 juk@



까사미아 센텀시티몰점.

까사미아 맞춤형 마케팅으로 충성 고객 확대나서

까사미아는 한층 강화된 '고객관계 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세분화된 고객 타겟 마케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무더위에 늘어나는 '몰캉스(쇼핑몰·바캉스)족'을 겨냥해 대형 쇼핑몰 내 스텝숍 매장의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부터 까사미아 스타필드 하남점, 17일부터 부산 신세계센텀시티몰점에서 오픈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오랫동안 이어지는 집콕 생활에 집안 분위기를 휴양지 콘셉트로 꾸미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여름철 집안 분위기를 시원하게 바꿀 수 있는 소품과 패브릭 제품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헤리티지는 물론 충성도 높은 밀레니얼 고객층 확보를 위해 회원 등급체계 세분화와 VIP 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까사미아 통합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KT, 금융 API 클라우드 서비스 4종 출시

비즈니스정보 기업 쿠론과 협업

KT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전문기업 쿠론과 협력해 금융기관을 위한 API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사가 체결한 금융 API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에 출시되는 금융 API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 ▲신분증 진위확인 ▲예금주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통합 조회로 총 4종이다.

KT 클라우드 인프라로 제공돼 고객

사 내부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다. 간편 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본인인증 등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비즈니스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론은 금융, 공공, 유통, 의료 등 산업 별 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정보 제공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대 정보 API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국내 최초로 금융보안원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통과해 KEB하나은행 글로벌 결제 플랫폼(GLN) 구축, 금융 전용 클라우드존 오픈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김나인 기자

경동나비엔, R&D 등 50개분야 공개 채용

경동나비엔은 오는 14일까지 연구개발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영업, 기획, 마케팅, 생산관리 등 총 50여개 분야에 걸쳐 인재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생활환경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3일 당시 정부의 전환경보일려 의무화 이후 확대되는 콘텐츠보일려 시장에서의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고,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청정환경기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절벽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행 투자를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은 최근 계속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인 채용을 통해 인재 경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코트라, 러시아서 온라인 韓우수상품전

중소·중견기업 164개사 참가

KOTRA(코트라)가 지난 6월 29일부터 3주 동안 CIS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 중이다. 이번 온라인 한국상품전에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164개사가 참가했다.

코트라는 하반기에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모스크바에서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했다. 상품전은 온라인전시, 화상상담,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코트라는 러시아·CIS 시장 유망품목을 선정했다. 뷰티, 식품,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코트트라가 3주 동안 러시아에서 개최중인 CIS 온라인 한국우수상품전.

260개 제품을 온라인 전시 플랫폼인 '바이코리아'에 홍보하고 바이어 화상상담을 지원한다.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후속 사업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